

# 대한민국이 원하면 달라이 라마는 만사 제치고 온다

##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원장 텐진 남카 스님

티베트하우스 코리아는 2008년 일산 여래사(회주 정우)에 동지를 불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었다. 한국에는 한국정부와 중국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등으로 창립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달라이 라마 생일에 맞춰 창립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지도 연기된 상태다. 달라이 라마의 생일 하루 전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원장 텐진 남카 스님을 만나 티베트하우스와 달라이 라마의 근황, 한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물었다. 글=이성민 기자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티베트하우스 코리아에서 원장으로 이름만 돼 있을 뿐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티베트 스님 10여 명이 있지만, 그동안 한국과 티베트의 인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깊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달라이 라마가 한국에 오지 못한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한국에 온 것도 결국 존자님의 뜻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한국 신도들이 당신의 법문을 듣고 티베트 불교를 배우기 위해 인도로 찾아 온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인들의 깊은 신심을 본 달라이 라마가 제게 한국에 가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고 교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어떤 존재인가.

달라이 라마는 모든 티베트인들이 부모처럼 생각하는 스승이자 왕입니다. 저는 달라이 라마 성호로부터 비구계, 보살계, 밀교계 등 모든 것을 직접 받았고, 8세 때 출가 이후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한국에 올 계획은.

한국에서 초청을 하고,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존자님(달라이 라마)은 오실 것입니다. 보통 존자님을 초청하려면 2-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고 망명 티베트 정부로부터 1년 전에 방문 허가가 납니다. 매년 일정이 정해져 있지만 달라이 라마는 “한국에 갈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을 취소해서라도 갈 의향이 있다. 한국 방문에는 정치적인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텐진 남카 스님은... 1968년 출생. 8세에 남인도 티베트 사원인 간덴 사원으로 출가해 31세까지 5대 경전을 배운 후 5대 경전을 15년 넘게 강의하고, 박사(계제) 중 최고의 지위인 라담을 취득하기 위해 간덴, 데봉, 세라 사원의 스님들과 6년 동안 5대 경을 시범 본 후 2000년 계세라라빠 학위를 받았다. 2001년 규메 사원에서 1년 동안 밀교를 공부하며 현교를 강의, 2002년 규메 사원에서 간덴, 데봉, 세라 사원의 박사들과 함께 박사 최종시험에서 1등을 수행했다. 2002년부터 간덴 사원의 교수로 임명돼 2003년까지 강의했다. 현재는 동국대 티벳장경연구소 연구조빙교수, 티베트하우스코리아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 불교계가 주축이 돼 초청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달라이 라마 초청은 한국과 중국 정부 간 관계 문제로 아직 이뤄진 적이 없다.) 초청에 또 실패하면 존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 자유, 선진 국가인 한국이 그렇게 눈치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중국의 압력과 자국 내 국민의 열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는 다른 쪽에 선택하고 있

습니다. 우리는 역지로 존자를 한국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단지 대한민국 국민이 원한다면 모실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부처님 가르침은 같습니다. 대승불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베트에서 승려가 공부하는 데에는 20여 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철저히 공부를 하고 다른 나라에 가기 때문에 법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1959년 인도로 망명 갔을 때 한국 나이로 25살이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망명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종교였고, 두 번째는 민족의 자유였습니다. 티베트는 종교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인도는 오늘 끼니를 해결하면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존자는 미래 티베트와 티베트 불교를 위해서 학교와 종교 재단을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인도 수상이 어린이를 위한 교육 시설을 세우는데 직접 동참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도 종교재단 설립은 어려웠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간절한 부탁과 요청을 해 설립했고 이후 끊임없이 대중을 교육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종파는 겐룩(Gelug), 카규(Kagyü)파, 닝마(nyingma)파, 사카(sakya)파가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겐룩파 안에는 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 출가할 때는 절에 500여 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4000명까지 늘었습니다. 당시 공부한 스님들이 전 세계에 포교활동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5살 젊은 달라이 라마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존자는 티베트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티베트가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계획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모두 영어를 잘하는 것 같다. 흥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티베트 승려가 모두 영어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유럽이나 미국에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 프랑스, 싱가포르, 대만에 여러 번 초청을 받았는데 가면 통역이 있어 얼마든지 법회가 가능합니다. 티베트 법사나 승려는 전 세계를 다니며 법을 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법문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통역이 있으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에 티베트 불교가 들어간 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연구소가 많아졌고, 불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에 말합니다. 티베트어 통역이 없는 곳은 한국뿐입니다. 불교를 전하는 데는 불교를 아는 이와 불교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통역자만 있으면 됩니다.

종교의 세속화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불교가 반드시 산책대에 있어야 하고 수행자는 토굴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행동과 일을 하든지 무엇이든 수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행자라고 해서

산속에서, 토굴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 또한 요즘 수행자들이 깊은 산속이나 암굴에서 민중을 멀리한 채 자기만의 수행을 고집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 재가자 중에도 대보살이 있으며, 대보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왕이나 귀신, 다리, 계단 등 무엇으로든 화현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은 보리심으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나친 것은 또 문제가 되겠지만, 휴대전화나 뭐든 필요로 한다면 써야 할 뿐입니다. 칼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잘못 쓰면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베트는 더 이상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티베트인의 바람은 무엇인가.

단지 언어, 종교, 민족성에 대한 자유만 원할 뿐입니다. 별래까지도 자유가 있는데 말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몇 젊은 분들이 티베트의 독립과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명 티베트 정부가 독립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사회참여를 어떻게 하는가.

시위와 같은 행위를 통한 참여는 별로 없습니다. 티베트 승려들이 정치에도 참석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에서 국민 투표로 뽑은 최초의 총리 삼동린포체(Kalon Tripa, prime minister)는 위대한 승려이자 학자이고 수행자였습니다. 이렇게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티베트는 사회참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려들은 언제든지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게 “그것은 학자의 일이다. 이것은 학교의 일이다. 수행자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교는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수행하지 않고, 눈으로 모양만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한국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차이점은

가르침의 핵심은 (반야경)에 있으며 불교의 핵심은 ‘보리심’이라는 기본적인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번역본이나 스승이 가르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것, 자신의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 때는 제가 속한

겐룩파가 최고이고 다른 티베트 종파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존자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점차 바뀌었고 이후에는 기독교와 힌두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국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미국에는 티베트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습니다. 또 그들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에는 한국불교 수행자를 맞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내에서 한국불교를 제대로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영국이나 일본 등 전 세계에 불교를 알리고자 한다면 그 나라에 없는 것을 갖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없는 특이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불교도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현재는 21세기다. 예전 방식대로 그냥 기도만 하고, 부모가 불자이기 때문에 절에 가는 불교는 지났다. 불교를 배우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왜 불자가 돼야 하는지, 왜 불교를 따라야 하는지 불교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출재자의 구분 없이 똑같이 불교를 배우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자비심이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노 스님들이 외국에 많이 다녀왔는데, 서양의 정황을 살펴본 스님들은 우리에게 격정하며 ‘서양의 불교연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후에 아시아에서는 불교가 줄어들고 서양에서 늘어나면 우리가 가서 배워야 할 시대다’며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티베트보다 불교가 들어온 지 더 오래된 불교국가임에도 자국에서 불교를 배우지 않고 일본·대만·유럽·미국에서 불교공부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에는 큰 절과 많은 스님들이 있는데 왜 남의 나라에 꼭 가야할까요? 한국 내에서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향후 계획은.

티베트, 한국, 일본 불교를 구분하지 않고 불교에 대한 강의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간화선과 선(禪)의 체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티베트는 경전과 논서를 바탕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엇이든 근거로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백서**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야앳배기 냉하거나 손 발이 차신분 \*오심증,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물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 쓰는 3~4일 먼저 선행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임 (조합지극건강대, 오심건강조, 오추배개등 지매품다양)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 불경 뉴롬비니**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롬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롬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공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롬비니는 담배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롬비니에 반응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평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튼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재 50호 故승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법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용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석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롬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롬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롬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3-9184) 입금계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 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